

# 松廣寺 祖師圖에 나타난 服飾에 관한 研究

— 色과 文樣을 中心으로 —

安 明 淑

光州大學校 衣裳學科

## A Study on the Costumes in a Portrait of the Buddhist Monk of the SONG KWANG Temple.

Myung Sook An

Dept. of Apparel Design, Kwang Ju Univ.

(1993. 8. 23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stumes of the Most Reverend Priest, which shows a portrait of the Buddhist monk in Koryo dynasty, owned by SONG KWANG Temple.

A surplice(袈裟) and a long sleeved Buddhist robe(長衫) was chiefly shown up a portrait of a Buddhist monk.

The purpose of this study find out the color, form, pattern, material, adornment of the costumes which is appeared a portrait, and also seek to changing process according to the times.

the finding in this paper are :

- \* A surplice - color : red, green, yellow etc.  
form : big size surplice, provision surplice.  
pattern : no.  
material : unstriated silk.  
adornment : bolt, ribbon.
- \* A long sleeved Buddhist robe -  
color : grey, blue, dark blue, pink, green, chestnut ,etc.  
pattern : no.

In comparison with a survery of previous studies of Buddhist comstumes, the color and type of the Koryo dynasty are more brilliant various color.

In other words, the social status of monk in the Koryo is higher than present day.

### I. 序 論

우리나라 佛教服飾에 관한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로 있다가 1970년대 이후로 많이 연구가 되었으나 주로

현존유물과 문헌 중심의 것이 대부분이었다.

本 研究인 조사도에 나타난 복식도 불교복식으로 高僧 중 대부분 국사들의 불교복식에 관한 연구로, 그동안 연구되었던 문헌과 유물 중심의 불교복식 연구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인 불교복식을 연구하고자 하는 일면으로 조사도의 복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祖師圖란 祖師의 佛像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개성 있는 인격의 표현으로서 결국 초상화로 표현되어지므로 사실성이 뛰어나, 조사도를 통해 불교복식의 일면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本 研究 자체가 佛教服飾 전반에 관한 연구라는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의 일부로서 연대가 비교적 확실하고, 현존 조사도 중 양식이나 모든 것에서 뛰어나므로 연구대상으로 적당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려시대 승려의 眞影 중 대표적인 전라남도 승주에 위치한 승광사 國師殿과 楓巖影閣에 있는 조사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로 국사전에는 고려시대의 국사로 책봉되었던 보조지눌을 비롯한 15인과 국사로 책봉되지 않은 공덕과 법력이 국사와 같다 하여 宗門에서 함께 모신 고봉화상의 16국사 신영이 모셔져 있다. 이들 현존하는 16국사 진영은 금어 채운과 부찰에 의해 1780년에 한꺼번에 다시 그려진 진영이나, 옮겨 그린 때 초상화의 특성상 원본대로 했을 것이므로 화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성이 요구되는 복식의 표현은 그대로 재현했을 것이라고 진제하고 高麗時代 국사전 조사도의 복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사전 오른쪽의 眞影閣에는 조선시대 후기 고승진영 42점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를 풍암영각이라 하는데, 그 까닭은 풍암세찰(楓巖世察: 1688~1767년)과 그 문하고승들의 진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형태나 양식으로 보아 국사전의 조성연대 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일면이긴 하나 조사도에 나타난 불교복식으로 袈裟와 長衫의 색·문양 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를 살펴 그 양상을 알아보고, 이들이 그동안 연구된 불교복식과 어떤 맥락 속에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승광사 소재 조사도 각각에 대해 실물조사하여 사진촬영하고, 거기에 나타난 가사와 장삼의 여러가지 특징 등을 조사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전라도 지역사찰 조사도 연구와 더 나아가서는 경상도 및 전국 사찰을 통괄한 조사도 복식을 연구할 계획이다.

## II. 祖師圖의 理論的 背景

### 1. 祖師圖의 概念

祖師圖란 더 높은 高僧의 모습을 그린 肖像畫로 대상 인물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정으로 그려지는 기록화이므로 그의 겉모습과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제한된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즉 국가의 祖宗을 대표하는 王의 御眞이 조성되어 眞殿에 봉안되고, 국가공신과 일반사대부의 화상이 祠廟에 봉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에서는 역대 조사와 고승의 진영을 조성하여 사원의 祖師殿이나 眞影堂에 봉안하였다.

眞影이란 말은 보통 肖像畫 또는 佛書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인물의 본질을 의미하는 眞과 겉모습을 본 뜬 影이 합해서 된 것<sup>2)</sup>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도는 사실적이다. 초상화이므로 생존 시에 그 모습을 그려 놓지 못한 경우는 상상에 의해 진영을 조성하지 않고 명호를 쓴 위패로 대신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 <圖 1>의 김룡사의 농암 가위 진영은 진영 대신 이름을 쓴 위패와 자신의 계승으로 대신하였다. 즉 “○○大禪師 ○○之眞影”이라고 쓴 것을 초상화 대신하여 모신 것이다.



〈圖 1〉 楓巖堂 可僞 眞影  
(김룡사 소장)

조사도로 그려질 수 있는 高僧은 보통 국사인대, 이들의 위치를 알아보면 먼저 불교의 法階는 선종의 경우 大禪·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禪師·大禪師로 분류되고, 교종의 경우는 大禪·大德·大師·重大

師·三重大師·首座·僧統으로 분류하며, 선종은 禪師·大禪師, 교종은 首座·僧統의 법계를 가진 자 중에서 왕사와 국사로 받들고<sup>3)</sup>, 이 법계의 구별에 따라 복식의 차별을 두었다. 그러므로 조사도로 그려진 국사들은 상당히 높은 법계를 가진 고승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祖師圖의 造成 및 時代的 背景

조사도가 그려지는 데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師資相承의 증거로 둘째, 八祖談議를 위해 셋째, 法系의 확인을 위해 넷째, 講會의 본존으로 다섯째, 授戒·灌頂을 위해 여섯째, 祖師忌를 위해 일곱째, 印可로서 祖堂의 掛具로서 평생 지니고, 스승의 은혜에 다스려지는 것을 회망하기 때문에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도(화)가 그려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道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師風의 追仰에 있다. 석가가 가섭에게 엄화시중의 미소로 법을 전하였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師資相承을 경전보다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스승을 所依 經典처럼 받들게 되었고 깨달음의 경지가 담겨 있는 모습을 그린 진영은 조사 신앙의 예배 대상이 되었다.

고승진영은 한 인물에 대하여 여러 점이 제작될 수도 있었다. 종파의 시조나 사찰의 창건주를 비롯하여 역대 고승 대덕들의 모습이 비단 화복에 채색으로 그려져 진영당에 모셔져 있다. 고려말의 지공, 나옹, 무학 등 삼화상과 임진왜란 때 구국에 앞장섰던 서산, 사명의 진영은 각각 10여점이 봉안되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법력과 교화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던 화성지안, 영파성규, 화악지탁, 화담경화 등의 진영도 여러 지역의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sup>4)</sup>

현존하는 조사 진영은 대부분 조선 후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추모의 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훼손이 되면 계속 옮겨 그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진영이 조성되었으나 제작연대가 올라가는 현존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초상화라는 관점에서 옮겨 그린 때도 원본대로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우리가 보고자하는 복식은 그대로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각 사찰에 봉안된 조사도들은 형식이나 양식의 차이가 조성연대의 차이 보다 각 지역의 절이나 그 곳에 속한

화승들에 의하여 각각 다른 전통과 화풍을 가지고 표현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고승진영은 불교가 수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부터 조성되었으리라 짐작되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현재 전하고 있는 진영 조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813년에 세워진 단속사의 신행선사비문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고승진영의 조성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초기의 승려들은 우선 불교의 유포와 흥법, 탑상 건립 등의 단계를 거쳐 감통, 신이를 보여줌으로써 교화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조성이 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진영조성이 활발하지는 못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전기 고승대덕들의 진영을 옮겨 그리거나 새로이 조성하는 한편 서산·사명 대사 등의 국가 유공자와 그들을 중심으로 한 특정 문중에 속하는 승려들의 진영이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 III. 祖師圖에 나타난 服飾

### 1. 國師殿(十六國師)의 服飾

우리나라 스님들의 法服으로는 크게 袈裟와 長衫을 들 수 있다. 가사란 인도 승려들에게는 일상복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복 자체의 의미보다 法服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法을 說할 때 입는 것으로 불제자로서 교리를 신봉하고 준수해 포교하는 승려들의 복장으로 불교도 특유의 것"이다. 장삼이란 唐나라 武后때 直綴를 입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sup>5)</sup> 이것은 승려의 短衣인 褙衫과 裙을 연결한 옷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長衫이라 불렀다.

국사전 16국사 복식을 袈裟의 色·條의 有無·帖相의 色 및 文樣·袈裟를 고정시키는 장식과 長衫의 色·文樣 등을 살펴보면 다음 <表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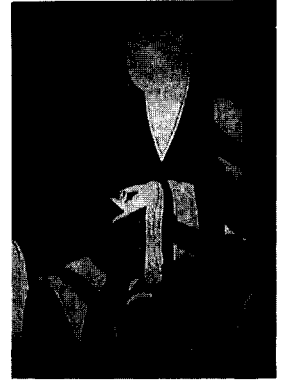
<表 1>에 나타난 바를 요약해 살펴보면, 袈裟의 色으로는 홍색·초록색·연초록색·미색(황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袈裟에 條 표시가 있을 뿐 아니라 조에 다른 색을 댄 모두 帖相袈裟이며, 帖相의 색으로는 연초록색·초록색·진초록색·홍색·복청색 등이 사용되었고 帖상에는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비슷하게 나타

〈표 1〉 國師殿 祖師圖의 服飾

十六國師名	袈 裟					長 衫	
	色	條有無	帖相色	帖相文樣	固定裝飾	色	文樣
1世 普照國師	홍	0	초록	×	빗장	진초록	×
2世 眞覺國師	초록	0	홍	×	안보임	진초록	×
3世 淸眞國師	홍	0	초록	×	빗장	진초록	×
4世 眞名國師	홍	0	연초록	○	빗장	진초록	×
5世 慈眞國師	홍	0	진초록	○	빗장	진초록	×
6世 圓鑑國師	홍	0	진초록	○	안보임	진초록	×
7世 慈靜國師	연초록	0	홍	×	안보임	진초록	×
8世 慈覺國師	미색	0	분청	○	빗장	분홍	×
9世 湛堂國師	홍	0	초록	○	빗장	초록	×
10世 慈鑑國師	홍	0	초록	○	빗장	진초록	×
11世 慈國國師	미색	0	초록	○	끈	진초록	×
12世 慧覺國師	홍	0	초록	○	빗장	초록	×
13世 覺嚴國師	홍	0	초록	○	빗장	진초록	×
14世 淨慧國師	초록	0	홍	×	빗장	진초록	×
15世 弘眞國師	홍	0	초록	○	빗장	분홍	×
16世 高峰國師	초록	0	초록	×	빗장	초록	×



〈圖 2〉 빗장장식  
(1세 보조국사)



〈圖 3〉 끈장식  
(11세 자원국사)

났다.

條袈裟란 長方形의 布를 구성할 때 종선과 횡선으로 구획하여 일직선의 띠와 같은 상태<sup>91)</sup>인 條를 만들어 가사 전체를 구획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재는 조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방법이고 원래는 布施를 받을 때에 十人이 있으면 十等分하고 百人이 있으면 百等分하도록 佛陀가 가르친<sup>92)</sup>데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는 서역제국을 경유해 중국을 통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사에 조수가 확실히 표시되었고, 인도에서는 조수가 확실하지 않고 drapery를 사용해 의습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인도승의 가사에는 조수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승의 가사에는 조수가 확실히 표현되어 있다.<sup>93)</sup>

가사를 고정시키는 장식으로는 조사도도 회화인 만큼 표현 기법상 잘 보이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도 3점이 있으며 주로 빗장장식(圖 2)이 대부분이고, 11세 자원국사의 경우는 끈(圖 3)으로 되어 있다.

長衫에 사용된 색으로는 초록색·진초록색·분홍색이 있으며, 문양은 대부분 없다.

보통 가사나 장삼의 재질로 비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 비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양을 넣는 것이

상례인데, 국사전의 16국사 모두 가사와 장삼의 바탕에 문양이 없었다. 이로 보아 당시 가사와 장삼에 사용된 옷감이 비단이 아니거나 아니면 無紋織物의 비단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帖相의 옷감에는 대부분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공이 잘못 그리지 않았다면, 같은 有紋織物을 하나는 문양을 표현하고 다른 하나는 표현하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옷감이 비단이 아니거나, 같은 비단이라면 변화를 주기 위해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 사용하였던 것 같다.

회화라는 특성이 갖는 것도 있지만 색상·문양·장식 등의 차이는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입고 있는 모습을 평면적으로 그린 것이므로 형태상의 특징을 잘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즉 착장된 가사가 몇몇 가사인지, 옷감의 재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사의 착장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袈裟色을 일명 壞色이라 하고, 靑·黑·木蘭으로 피색하지 않고 다른색을 사용해 옷을 만들어 입으면 波逸提<sup>94)</sup> 하였다. 그런데 가사색은 壞色 뿐 아니라 黃衣·靑衣 등도 착용되었다. 이것은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靑黃五綵와 眞慈上色(五間色)은 심신을 현란시켜 수행에 방해 되고 화려하여 속인들이 탐하는 것이라 하여 모두 억제해 3종피색 만을 사용하게 한 것이거나 나중에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차츰 변형되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본 국사전 조사도의 복식에서도 가사색으로 홍색·녹색계통·미색(황색) 등이 사용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의 특징으로는 16국사 모두가 침상가사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 쌍용총 고구려 벽화에서도 보이

뜻이 이미 삼국시대 부터 사용된 가사의 양식으로 紅綠帖相袈裟(홍색가사에 녹색의 첩상)가 주를 이루며, 綠紅帖相袈裟(녹색가사에 홍색의 첩상)·黃綠帖相袈裟(황색가사에 녹색의 첩상) 등도 있다.

袈裟의 着裝法은 오른쪽 어깨를 노출시키고 있는 偏袒右肩式으로 걸쳤으며, 가사의 길이나 입은 모습 등으로 보아 大袈裟일 것 같다. 道元禪師가 『偏袒右肩이 常途의 法이다』라고 하였듯이, 편단우견은 통상 걸치는 방식이고 右肩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쉬운 모양으로 자기 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바른자세<sup>21)</sup>라 하였다. 그러므로 보통 佛畫나 佛像 및 실제 착용한 모습을 보면 佛·菩薩은 通肩이 많고, 僧侶는 偏袒右肩을 많이 착용했다.

가사를 고정시키는 영자는 후기의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장식적 요소 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장삼의 색은 대부분 초록색, 계통이나 8세국사와 15세국사의 경우는 분홍색 장삼을 착용하고 있다. 장삼의 경우는 고려시대 유물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청색계통이나 황색계통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겨울용 장삼과 여름용 장삼의 색도 달리 하였고 원 조계종과 태고종의 회색 장삼으로 된 것은 최근의 일로 보인다.

2. 楓巖影閣의 服飾

풍암영각 조사도의 복식을 살펴보면 <表 2>와 같다. 풍암영각 조사도 袈裟의 색은 농담의 차이는 있으나 42점 모두 홍색가사이며, 條 표시가 모두 되어 있으나

(표 2) 楓巖影閣의 服飾

國師名	袈裟				長衫		國師名	袈裟				長衫	
	色	條有無	帖相色·文樣	袈裟固定裝飾·襷子色	色	文樣		色	條有無	帖相色·文樣	袈裟固定裝飾·襷子色	色	文樣
1 雪月堂大和尚	홍	○	회화이브로 조각 있다.	빛장	회색	×	22 楓巖堂大和尚	홍	○	바늘땀으로 조 표시.(흰 색실로 주로 하여으며, 조의 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색 으로 그 위 에 더 표현) 문양은 없음.	묽음·홍녹황	연고동	×
2 大愚堂大禪師	홍	○	표시를 바늘 땀으로 함.	빛장	회색	×	23 雲峯堂大和尚	홍	○		고리·안보임	회색	×
3 龍湖堂大禪師	홍	○	문양은 없음.	빛장	회색	×	24 應庵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연고동	×
4 印峯禪師	홍	○	회화적 표현.	가사 자체로 묽음	회색	×	25 九蓮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연고동	×
5 巖峯堂大和尚	홍	○	바늘땀으로 조 표시. (실의 색을 달리해서 표현)	묽음·홍녹황	연회색	×	26 幻海堂大和尚	홍	○		고리·홍황녹	연고동	×
6 樓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연고동	×	27 玄柱堂大和尚	홍	○		고리·홍황녹	회색	×
7 枕龍堂大和尚	홍	○	문양은 없음.	묽음·홍녹황	회색	×	28 隱虛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회색	×
8 樂庵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회색	×	29 華岳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진회색	×
9 滿月堂大和尚	홍	○	신홍색.○	묽음·홍녹황	회색	×	30 鬪堂大和尚	홍	○		묽음·녹황홍	진회색	×
10 鏡月堂大和尚	홍	○		안보임·홍녹황	회색	×	31 會高堂大和尚	홍	○		묽음·홍황녹	고동색	×
11 靈峯和尚	홍	○	바늘땀으로 표시. (실의 색은 주로 흰색 이고, 조의 표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위에 다른색으로 더 표현)	빛장·홍녹	신초록	×	32 葆光堂大和尚	홍	○		고리·홍황녹	회색	×
12 枕湖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연고동	×	33 雪峯堂大和尚	홍	○		묽음·홍황녹	회색	×
13 華雲堂大和尚	홍	○	문양은 없음.	빛장·홍황색	회색	×	34 應峯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진회색	×
14 海蓮堂大和尚	홍	○		묽음·홍황녹	연회색	×	35 東湖堂大和尚	홍	○		정확하게 안보임	곤색	×
15 斗月堂大和尚	홍	○	바늘땀으로 표시. (실의 색은 주로 흰색 이고, 조의 표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 위에 다른색으로 더 표현)	빛장·홍황녹	회색	×	36 咸月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회색	×
16 圓庵堂大和尚	홍	○		빛장·홍황녹	연고동	×	37 中峯堂大和尚	홍	○		묽음·녹홍황	고동색	×
17 圓應堂大和尚	홍	○	문양은 없음.	묽음·홍녹황	회색	×	38 洞虛堂大和尚	홍	○		묽음·황녹	진회색	×
18 碧潭堂大和尚	홍	○		빛장·홍황녹	진회색	×	39 守山堂大和尚	홍	○		묽음·홍녹황	회색	×
19 高峯堂大和尚	홍	○	가사 바탕에 꽃문양 있음.	묽음·홍황녹	연고동	×	40 圓海堂大和尚	홍	○		고리·홍황녹	연고동	×
20 龍對堂大和尚	홍	○		빛장·홍녹황	회색	×	41 滿湖堂禪師	홍	○		표시안됨	진말색	○
21 默庵堂大和尚	홍	○	안보임	군청색	×	42 樂庵堂大禪師	홍	○	표시안됨		회색	×	



〈圖 4〉첩상가사  
(응봉화상)

첩상가사는 응봉화상(圖 4)뿐이었고 진홍색의 첩상에 문양도 있다.

〈表 2〉에서 보았듯이 조를 첩상가사처럼 다른 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의 가사처럼 같은 색으로 표현하였고, 회화인 특성으로 인해 조의 표지를 바늘땀으로 하여 표현했고(圖 5),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조 있는 부분을 검정색 등으로 줄을 그은 것(圖 6)을 볼 수 있다. 그 의도는 條袞裳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함호당선사와 육암당대선사의 가사에 잔잔한 꽃무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사에 문양은 모두 없었다.

국사진 조사도의 복식에 비해 전체적인 외형과 세부 표현 등 여러면에서 최근의 것이라는 것과 사실적 표

현이 결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국사진의 조사들이 불교법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표현에도 더 정교하고 정성을 들였으며, 사실성 있게 표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지도 모른다. 또한 고려시대는 국교가 불교였으므로 스님들의 위치가 높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송유역불정책으로 스님들의 위치가 낮아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복식에도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袷袢을 고정시키는 장식은 회화의 자세 표현상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주로 영자를 사용하여 뽕기나 빗장 장식을 하였고, 인봉선사(圖 7)의 경우는 다른 가사에 비해 상당히 회화적 표현이 되었고 가사 고정장식도 다른 것과는 달리 가사 자체감으로 끝을 묶어 표현하였다. 영자의 색으로는 홍색·녹색·황색이 주였고 매는 위치만 다를 뿐이고 영자의 끈은 다른 조사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쌍으로 해서 매었고, 맨 모습도 국사진 조사의 것 보다 훨씬 장식적이고 형식적(圖 8)이며 실용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였다.

長衫의 색으로는 연회색·회색·진회색·연고동색·고동색·진초록색·군청색·곤색·진밤색(현재의 조계종 가사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물론 조사도의 수도 많긴 하지만 장삼의 색이 다양하게 여러가지 색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장삼의 문양도 함호당선사(圖 9)의 경우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문양이 없다. 동도사의 조사도에서도 그렇고 장삼의 색은 비교적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었다. 이는 가사의 경우는 인도의 것을 받아들여



〈圖 5〉조표현(바늘땀)  
(육암당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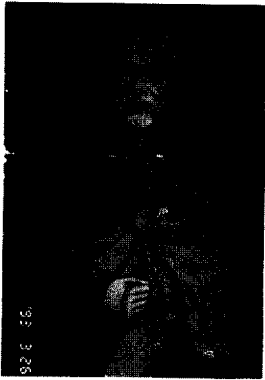
〈圖 6〉검정색 조표현  
(기봉당대화상)



〈圖 7〉인봉선사



〈圖 8〉장식적 영자  
(보광당대화상)



〈圖 9〉 장삼의 문양  
(합호당선사)

변형시킨 만큼 많은 제약이 있어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장삼은 기후 여건상 우리나라에서 착장된 것이므로 다양하게 사용된 것 같다.

袈裟 着裝法도 모두 편단우견을 하였고, 가사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국사전 조사도의 것 보다는 작았으며 여러가지 장식이나 형태 등으로 보아 국사전의 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 IV.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사전의 조사도에 나타난 가사는 색에 있어서 홍색·녹색·황색 계통으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상이 사용되었고, 장삼의 색으로는 초록색과 분홍색 계통이 사용되어 우리나라 조사도에 나타난 장삼의 색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데 비해 통일감 있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사전의 16국사 모두가 복식의 형태나 색상 및 그외의 여러가지 양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사람에 의해 조사도가 그려졌다는 것과 16국사들의 불교에서의 법계가 비슷하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국사전이나 풍암영각의 가사에 모두 條가 있는 것으로 보아 律에 근거를 둔 정통적 가사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승려나 부처들의 가사 표현에 불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條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불상의 경우는 條袈裟 보다는 卷衣型 袈裟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불상을 조성하는 재료의 제한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국사전의 것은 첩상가사이나 풍암영각의 것은 한점을 제외하고는 첩상가사가 아닌 단순한 조 표시를 하여 이 두곳의 조사도 조성연대가 다르다는 것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이미 삼국시대 때 부터 첩상가사는 사용이 시작되었고 국사전의 조사들이 풍암영각의 조사들 보다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아 첩상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시기에 만들어져 착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사나 장삼의 재질에 있어서도 문헌에 의하면 오래 전 부터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비단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두곳에 있는 가사와 장삼에는 문양이 없는 비단이 사용되었거나 비단이 아닌 직물이 사용되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더 자세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통도사나 백양사 등 다른 여러 사찰의 것을 보면 가사나 장삼에 문양이 있는 것이 많다.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국사전의 것에 비해 풍암영각의 것이 회화사적인 기법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복식 표현에 있어서도 사실성 보다는 똑같이 표현해야 한다는 것에 충실했던 것 같다.

또한 두곳의 색상 사용에 있어서는 반대로 나타난 것 같다. 국사전의 것은 가사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났고, 풍암영각의 것에는 장삼의 색상을 여러가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불교복식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회화로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성 때문인지 가사나 장삼의 색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발견된 유물이나 다른 자료들 또는 문헌에서 볼 수 없었던 색상들도 사용되었다.

앞으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도 복식을 연구하여 조사도를 통한 불교복식을 살펴 본 후 지금까지 연구대상이 되었던 현존유물, 불화, 불상 및 토대가 되는 문헌을 함께 포괄적으로 연관시켜 불교복식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빛깔있는 책들 103-19, 高僧眞影, 대원사, 1990, p.28.
- 2) 빛깔있는 책들 103-19, 高僧眞影, p.11.
- 3) 鄭貞相·金鏞泰 共著, 韓國佛敎史, 신흥출판사, 1976, p.123.

- 4) 平田寛, 戒律復興期における 南都の祖師畫について, 불교예술 68, 소화 43, p.28.
- 5) 빛깔있는 책들 103-19, 고승진영, pp.12-13.
- 6) 이운허, 불교사전, 불서보급사, 1961, p.5.
- 7)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계, 1971, pp.176~179.
- 8) 任榮子, 韓國宗教服飾, 아세아문화사, 1990, p.23.
- 9) 四分律藏 下, 海印寺叢林, 불기 2517, p.289.
- 10) 安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19.
- 11) 大正新修大藏經 22권, 大正一切經刊行會, 1926, p.676.
- 12) 澤木興道 鑑修·久馬慧忠 篇, 袈裟의 研究, 大法輪閣版, 1967, p.198.
- 13) 小林太市郎, 高僧崇拜と 肖像의 藝術, 불교예술 23호, 매일신문사, 1989.
- 14) 井筒雅風著, 袈裟史, 雄山閣出版, 1982.
- 15) 佐和隆研, 日本に於ける高僧像の形式, 불교예술 23, 매일신문사 1989.
- 16)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 6 송광사, 일지사, 1977.
- 17) 梅津次郎, 鎌創時代大和繪肖像畫の系譜, 불교예술 23, 매일신문사 1989.